



‘문화로 세상읽기’
김세원 지음



익숙한 세상, 때론 낯설게 바라보자

호주에서 손등을 내보이는 ‘V 사인’은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 같은 동작은 호주에서는 상대에게 모욕을 주는 행동이다. 대개의 경우 ‘V 사인’은 ‘승리’나 ‘2’의 의미로 통한다.
그뿐이 아니다.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모아 동글게 만든 사인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오케이’ ‘확실하다’ 의미로 통용된다.
그러나 한국, 일본, 멕시코 등의 나라에서는 ‘돈’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간혹 ‘제로’의 뜻으로 쓰이는 나라도 있다.
신체 언어는 음성 언어보다 훨씬 풍부하다. 몸짓과 표정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신체 언어였다.
무용가 출신 인류학자 레이 버드휘스텔은 ‘동작학’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흔히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언어를 떠올리지만, 실제 대화에서 음성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30~35%에 불과하고 65% 이상이 비언어적 형태로 전달된다”

고 주장한다.
여기에 덧붙여 그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한 문장의 평균 길이가 2.5초에 불과하지만 얼굴은 25만 가지의 표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널리스트 출신의 비교문화학자 김세원 가톨릭대 교수가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한 ‘문화로 세상읽기’를 펴냈다. 책은 외형상 다른 문화권에 대한 비교지만, 내용적으로는 문화에 대한 포괄적 안내에 초점을 둔 일문서다.
저자는 여러 사례를 근거로 다양한 문화 차이를 설명한다. ‘국제문화 비교하기’ ‘문화현장 들여다보기’ ‘문화경계인으로 살아가기’ 등을 주제로 종합무진 지구촌 문화 양상을 탐색한다.
그럼에도 저자의 관점은 다른 문화권에 대한 인정, 이를 받아들이는 포용성에 닿아 있다. 한마디로 ‘컬처 코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열린 시각을 견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프랑스의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마케팅 전문

가인 클로테르 라파리유는 ‘컬처 코드’를 이렇게 정의한다. “특정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일정한 대상에 부여하는 무의식적인 의미”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컬처 코드는 학습되지 않는다. 저마다 속한 세계에서 경험한 사건에 대한 반응에 따라 각인된다. 당연히 어릴수록 그러한 반응은 강렬하기 때문에 유년 시절을 어떤 문화에서 보느냐가 중요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고는 그 같은 사실을 방증한다. 게르만 문화권의 컬처 코드는 질서와 규칙이다. 레고 본 고장 덴마크를 비롯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대성공을 거뒀지만 미국에서는 생각만큼 많이 팔리지 않았다.
질서와 전통을 중시하는 유럽과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컬처 코드 차이 때문이다. 미국인에게 장난감은 상상력과 창조성의 산물이다.
저자는 올해 7월 체코 여행을 갔다가 프라하의 한 건물에서 낯선 장면을 보게 된다. 체코 민족의 상징적 인물인 바츨라프 성인의 가마상을 패러디한 체코의 예술가 님프 체르니의 작품 ‘죽은 말 위에 앉아 있는 요세프 바츨라프’를 보고 일대 충격에 빠진다.
거꾸로 매달린 말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은 그에게 익숙한 세상을 낯설게 바라보기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차이에 대한 인정은 사람과 사물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Culture&Story·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잃음으로써 더 깊어진 삶, 나이 들에 대한 긍정

‘잃어가는 것들에 대하여’
윌리엄 밀러 지음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은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다. 많은 이들은 여전히 나이가 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연적인 노화 현상과 맞물려 정신적인 무기력 때문이다.
미 성 앤드류스대 명예교수인 윌리엄 이안 밀러가 쓴 ‘잃어가는 것들에 대하여’는 나이 들에 대한 긍정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나이가 들어 오는 것도 있지만 젊었을 때는 가지지 못한 지혜와 현명함, 삶에 대한 깊이를 지닐 수 있다고 한다.
나이의 죽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비단 현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자신들을 청년으로

지칭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 유명한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도 63세 때 자신을 청년이라고 칭했다.
저자는 청년이란 상대적인 개념이고 인생의 단계는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한다. 다만 ‘청년’과 ‘고령 청년’의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청년이 초고속 열차를 타고 앞만 보고 달린다면 고령 청년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는 여유를 가진다.
이제 ‘고령 청년’이라는 호칭에 코웃음을 칠 게 아니라 그들의 지혜를 배우고, 나이 들에 대한 생각을 재정비해야 할 때다.
〈(주)레디셋·1만75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정도전·송시열·김정희...진정한 리더들의 모습

‘학자의 고향’
KBS 학자의 고향 제작팀 지음



조선 최고 학자들의 고향을 조명한 ‘학자의 고향’이 출간되었다.
2011년 KBS 1TV에서 45회에 걸쳐 소개한 ‘학자의 고향’ 편 가운데 16명의 이야기를 엄선한 것이다.
책은 학자들의 고향보다도 이들의 삶과 행보, 예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책에 소개된 학자들의 면면은 다양하다. 삼봉 정도전, 우암 송시열, 추사 김정희, 고산 윤선도, 송강 정철, 매월당 김시습 등...
이들은 시대적 가치를 설파한 사상가, 후학을 양성한 스승, 시대의 변화를 도모한 개혁가, 나라의 경영을

담당한 위정자,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을 꽃피운 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더러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간언했고, 명리를 버리고 민중 속으로 숨어들어 고단한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미완성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그럼에도 어지러운 세상, 리더십 빈곤을 겪는 오늘날 이들의 삶과 행보는 큰 울림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피폐한 민생을 안정시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인 진정한 리더들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서교출판사·1만7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변화는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변화’
이승현 지음



‘힐링 소사이어터’ ‘세도나 스토리’ 등으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려진 이승현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이 신작 ‘변화’를 펴냈다.
이 총장은 책에서 변화의 당위성과 방향 등을 물리학, 철학, 사회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을 토대로 흥미롭게 제시한다. 그가 말하는 변화는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차원까지 포괄한다. 단순히 개인에만 국한되는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다.
저자는 변화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

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단순히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창조하고 견인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라는 의미다.
“우리 안의 창조적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전 지구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문명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
〈히헌문화멀티미디어·1만35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밤을 지새워도 모자라는 이야기들

‘내 꿈은 군대에서...’
엄홍길 외 지음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는 끝이 없다. 솔자리에서 밤을 지새워도 모자라는 군대 이야기가 책으로까지 나왔다.
‘내 꿈은 군대에서 시작되었다’는 엄홍길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40인의 군대 이야기를 엮은 책이다.
2200쪽 국어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곡하게 옮겨 적었던 군대에서의 시간이 자신을 작가로 만들어 주었다는 소위 백가룡, DMZ에서 대북방송을 하며 두근거리는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체감했다는 류호진

PD, 자신의 축구 중계는 특종 전 투 축구에서 시작되었다는 서형욱 축구 해설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담겨 있다.
또 배우 안석환은 군대에서 소통의 근본인 ‘배려’를, 한국 1세대 패션모델로 활동하고 모델 에이전시 ‘모델라인’을 설립한 이계연 대표는 사업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모르면 알 때까지’라는 해병대 정신이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고 책을 통해 말한다.
〈샌더·1만3000원〉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현장에서 체험하고 느낀 글 모은 ‘삶의 보고서’

‘나는 천천히 울기 시작했다’
강광석 외 지음



그동안 삶의 생생한 현장을 담은 산문집은 거의 없었다. 그에 반해 좋은 작가, 좋은 글은 많았다. ‘나는 천천히 울기 시작했다’는 유명한 시인, 소설가 그리고 농민, 노동자 등이 저마다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느낀 글을 한데 모은 일종의 ‘삶의 보고서’다.
책은 지난 10여 년간의 노동, 생활, 취미 등 넓은 의미에서 인생이라 부를 만한 것들을 망라했다. 생활과 노동에 대한 존중, 타자에 대한 배려심이 담긴 글들 위주로 수록했다.
김소연, 김연수, 성석제, 송경동, 이기호, 함민복 등 문인에서부터 강광석, 김진숙, 유소림, 하종찬 등 농민

과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글쓴이의 면면도 다양하다.
작가를 고르고 정한 기준은 없다. 단지 있다면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과 생존 작가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점이다. 각각의 글들에서 글쓴이의 독특한 향기가 느껴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렇게 모아진 작가와 그들의 글은 다양했다. 고향과 가족을 다룬 글이 압도적으로 많긴 했다. 많은 작가가 그 이야기를 주되게, 절절히 했다. 그때의 고향과 그때의 가족이란, 추억과 기억이 녹아든 구체적인 장소와 사람이면서, 또 그 단어로 상징되는 소중한 것이기도 했다.”
〈봄날의 책·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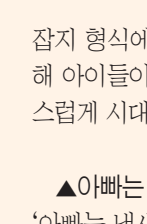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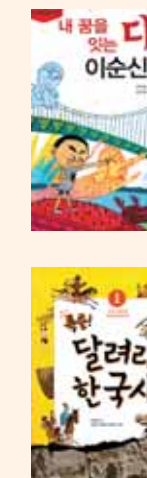
▲현대 아프리카의 역사=19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갈등 속에서 현대 아프리카의 모양새가 형성되어 온 과정을 일관된 시각으로 재구성했다. 책은 수많은 아프리카 위인들 외에도 병사, 노동자, 이주민으로 역사의 소용돌이 휩쓸리거나 주체적으로 동참한 개인들의 삶도 다룬다. 근대화, 제국주의, 민족주의, 저항과 탈식민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해 아프리카의 핵심적인 과제와 전망을 논의한다. 〈삼천리·3만5000원〉
▲삶을 긍정하는 허무주의=인생과 세상에 대한 총체적 삶을 추구한 원로 철학자와 젊은 시절에 그의 책을 읽고 성장한 다음 세대의 사회학자이자 작가인 정수복은 철학자 바이블과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심도 깊은 인터뷰를 진행하고 100권에 달하는 그의 저작을 모두 섭렵했다. 노철학자의 삶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비판·비평하는 사회학자의 시선이 돋보인다. 〈알마·1만9500원〉
▲현대 북한학 강의=보통 사람들을 위한 북한학 교과서. 한반도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북한은 매우 중요한 존재다. 접근 가능한 모든 자료를 가공해 북한의 실체를 구성하고, 그 의미를 과학적으로 규정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북한에 대한 지식과 판단의 근거를 찾는 데 충실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사회평론·2만2000원〉



▲이정호 감독의 마스터클래스=1970년대 청춘영화의 대표작인 ‘별들의 고향’으로 화려하게 데뷔해 1980년대의 대표적 감독으로 부상한 이정호 감독, 그의 40년 영화 인생을 한 권에 담았다. 2010년 1학기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에서 개설한 ‘이정호 감독님의 마스터클래스’의 수업 내용을 녹취하고 정리 보완했다. 수업은 이정호 감독의 영화 인생을 거침없이, 솔직 담백하게 들을 수 있는 특별하면서도 가장 ‘영화학교’다운 수업이었다. 〈작가·2만5000원〉
▲마더 테레사, 넘치는 사랑=2007년 처음 국내에 소개됐던 ‘마더 테레사, 넘치는 사랑’의 개정판이 출간됐다. 일본의 사진작가 오키 모리히코가 1974년부터 1981년까지 7년간 콜카타의 빈민가에서 접한 마더 테레사와 ‘사랑의 선교 수녀회’ 수녀들의 삶을 사진과 예시로 담았다. 마더 테레사가 1979년 노벨평화상을 받기 전부터의 활동이 정리돼 있는 보기 드문 책이다. 〈해남·1만4500원〉
▲잃어버린 보온병을 찾아서=사진가 노순택이 전해주는 분단인의 겨울일기. 2010년 겨울부터 2012년 겨울까지 3년에 걸쳐 작업한 90여 컷의 사진과 91권의 일기로 구성돼 있다. 연작으로 흐르는 사진 속에 당시의 포격이 남긴 참혹함과 분단이 낳은 비극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연평도에서 포격이 남긴 잔혹한 풍경들을 사진에 담고 있던 노순택은 ‘포탄이라 불린 보온병’의 행방을 3년에 걸쳐 헤집고 다녔다. 〈오마이북·2만3000원〉



▲우리 땅 기차 여행=산과 평야, 강과 바다, 도시와 농촌, 우리 땅이 한눈에 들어오는 커다란 입체 지도 그림책. 평면 지도로는 알 수 없었던 우리 땅 생김새가 머리에 속속 들어온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광주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정동진까지 기차 여행을 하는 동안 살아 있는 지리공부를 할 수 있다. 〈책읽는곰·1만8000원〉
▲피지카와 유럽 일렉트론=영동발랄 이야기로 과학의 핵심 개념과 원리를 배울 수 있는 피지카 시리즈 3권 ‘피지카와 유럽 일렉트론’, 4권 ‘피지카와 기관차 부인’, 5권 ‘피지카와 꿈의 에너지’가 출간됐다. 삼각형 안경을 쓰고, 두 갈래로 뚫은 머리를 양쪽으로 치켜 올리고 다니는 피지카는 현실과 환상을 넘나든다. 〈해나무·각 권 9000원〉
▲내 꿈을 있는 다리, 이순신대교=어린이들에게 공학과 공학자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시리즈. 광양과 여수를 이어주는 이순신대교를 소개하는 이 책에서는 다양한 공학 본



의 협업이 필요한 교량 공학을 소개함으로써 어린이 스스로 융합적 사고와 창의성을 기르고, 직업관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준다.
〈주니어김영사·1만1원〉
▲특종! 달려라 한국사 1=만만년 한국사에서 알맹이만 속속 뽑아 만든 새로운 ‘천사의 역사책’ 시리즈, 1권 ‘조선 시대부터 삼국의 탄생까지’를 시작으로 다섯권으로 구성된다.
잡지 형식에 맞게 다양한 색선과 코너를 배치해 아이들이 한 권의 잡지를 읽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시대를 통괄적으로 이해하도록 했다. 〈한솔수북·1만2000원〉
▲아빠는 냄새나지 않아! 외=아빠 시리즈 ‘아빠는 냄새나지 않아!’, ‘아빠는 듣지 않아!’, ‘아빠는 울지 않아!’가 나왔다. 가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많지만 어쩔 수 없이, 아빠인 것을,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빠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이는 아빠와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다. 〈씨드북·각 권 1만1000원〉

어린이 책꽂이